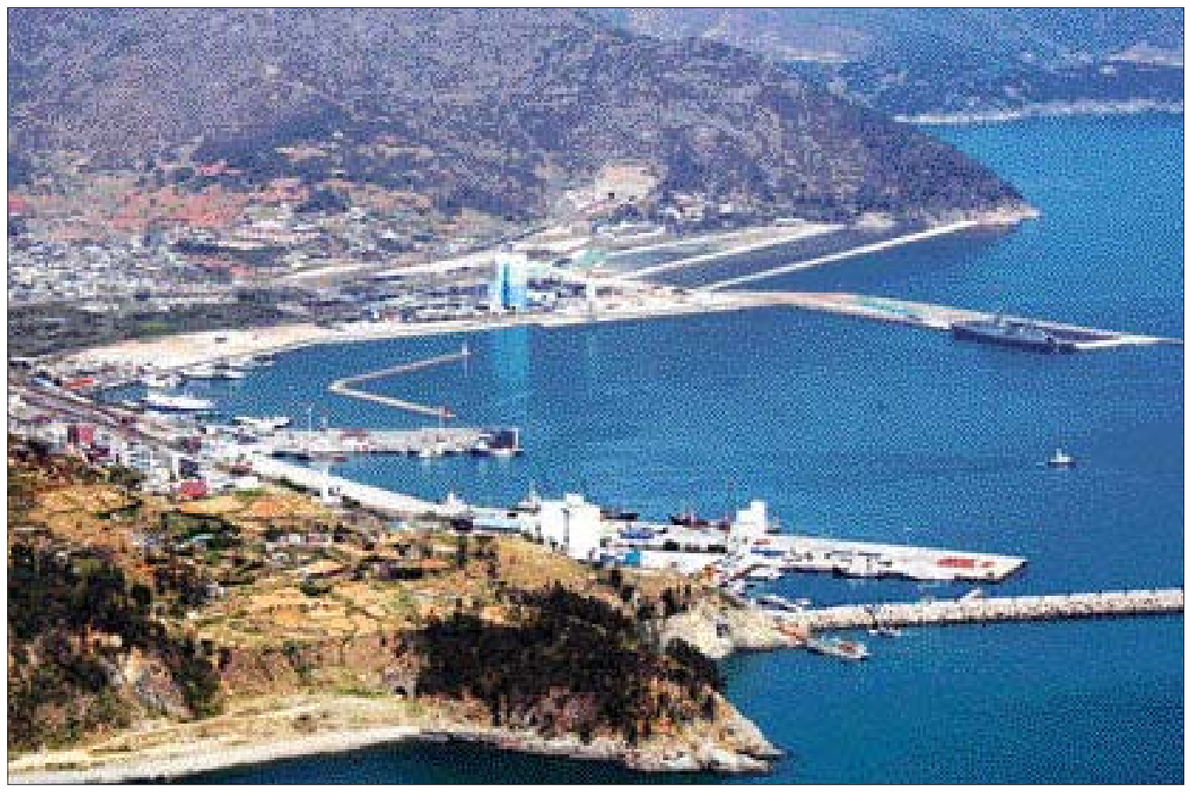
174만㎡ 박람회장, 전시·지원·숙박시설 들어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이 30일 '첫 삽'을 뜬다. 지난 2007년 11월 27일 프랑스 파리 세계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지 2년 만에 박람회 기반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공 개최 준비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무산 등으로 박람회 성공개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쿠아리움 민자유치가 성사되고, 규모는 줄었지만 숙박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도 이어지는 등 박람회 성공개최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여수 신항 전경. 여수 신항 일대 총 174만㎡ 부지에는 국제관·주제관, 아쿠아리움 등 총 13개의 주요 전시관과 전시 지원시설·이벤트 공간, 박람회 종사자가 묵게 될 2천10세대 규모의 엑스포 타운 등이 들어서게 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3개 전시시설·초대형 아쿠아리움·2천여세대 엑스포 타운

■ 박람회장 구성 어떻게

여수 신항 일대에 들어설 박람회장 면적은 총 174만㎡로, 크게 전시시설과 전시지원시설, 숙박시설 등이 자리하게 된다.

이 가운데 25만㎡에는 박람회 주요 핵심시설인 ▲주제관 ▲부제관 ▲한국관 ▲지자체관 ▲국가관 ▲국제기구·NGO관 ▲기업관 등 총 7개 관 13동의 전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 전체 면적만 12만4천400㎡규모다.

또한, 4만8천㎡에는 응급의료센터·치안센터·장애인 지원센터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서고, 47만1천㎡는 다목적 공연장과 수변광장 등 각종 이벤트 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관계자들이 묵을 2천10세대 규모의 엑스포 타운도 박람회장에 들어선다. 박람회 전시시설 가운데 주제관과 국가관은 국제 현상공모를 거쳐 조성되며 특히, 한국관은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제로 건물'로 건축 된다. 주제관은 1천8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고, 핵심 전시시설인 '빅오'(Big-O·Big-Ocean)와 연계되도록 계획돼 있다.

핵심 전시시설로 관심을 끌고 있는 '빅오'(Big-O)는 축구장 12배 크기의 바다전시장으로, 박람회장 전시구역 앞 오래된 V자형 제방의 양끝을 연결해 조성된다.

이곳에는 초대형 아쿠아리움(수족관)과 바다 속을 걸을 수 있는 바닷길, 오션타워 등이 들어선다. 또 연안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를 1/1000로 축소한 '다도해 공원'이 조성되며, 여수시내에는 길이 600m의 디지털갤러리가 들어선다. 박람회 랜드마크로 조성될 아쿠아리움(수족관)은 재정 468억 원, 민자 312억 원이 투입돼 수조 용량 6천30t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된다. 여기에 세계적 희귀생물인 '흰고래'가 조성되는 등 국내 최초 연구·교육 중심형 아쿠아리움으로 조성된다.

6천30t 규모의 아쿠아리움 조감도.

다도해의 작은섬을 연상케하는 국가관 조감도.

819채 지장물 철거 시작…주제관 현상 설계 공모 마무리

■ 지금까지 준비상황

조직위는 박람회 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 여수시 수정·덕충·공화동 일원 40만8천㎡ 부지 내에 있는 819채의 지장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했고, 이 지역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주제관에 대한 국제 현상공모도 마무리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건축물이자 여수박람회 주제관 현상 설계 공모전에서 오스트리아 귄테르 베베르(Gunther Weber)가 출품한 '하나의 바다(ONE OCEAN)'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전시관의 연출 콘텐츠 제안 사업자 선정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Big-O'에서 펼쳐질 전시·연출·건축·공연 등에 대해 국제현상공모도 진행중이다. 다양한 해양 이벤트가 벌어질 아이디어 공모 접수는 다음달 18일까지다.

박람회 종사자들이 묵을 엑스포 타운은 현재 약 70%의 부지 협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영세민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 및 주민소득창출 사업 등도 병행되고 있다.

30개국·3개 국제기구 참가 통보…100개국 유치 무난할 듯

■ 참가 신청국 얼마나

전남도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는 지난해 말 BIE가 여수세계박람회를 공식 승인한 것을 계기로 참가국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1월 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독일, 터키, 스페인, 태국 등 30개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PEMSEA(동아시아 해양환경협의회) 등 3개 국제기구가 공식참가를 통보해왔다.

하지만, 올해 유치 목표인 50개국에 못 미치고 있는데다 내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에 지난 9월 말 현재 192개국, 49개 국제기구, 50여 개 도시 및 17개 기업관이 참가하기로 한 것과 크게 대조돼 참가국 유치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쿠아리움·국가관 등 주요 전시관 내년부터 본격 착공

■ 향후 주요 일정

박람회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주요 전시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쿠아리움의 경우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12년 2월까지 완공하고 3개월 가량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박람회 개막에 맞춰 개관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지난 9월 아쿠아리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여수씨월드와 협의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생각이다.

국제 현상공모가 마무리된 주제관 등에 대한 주요 전시시설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초께 모두 착공될 전망이다. 종사자 숙박시설인 엑스포 타운도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6월께 착공될 예정이다.

숙박시설 민자 유치·SOC 확충 정부 예산 지원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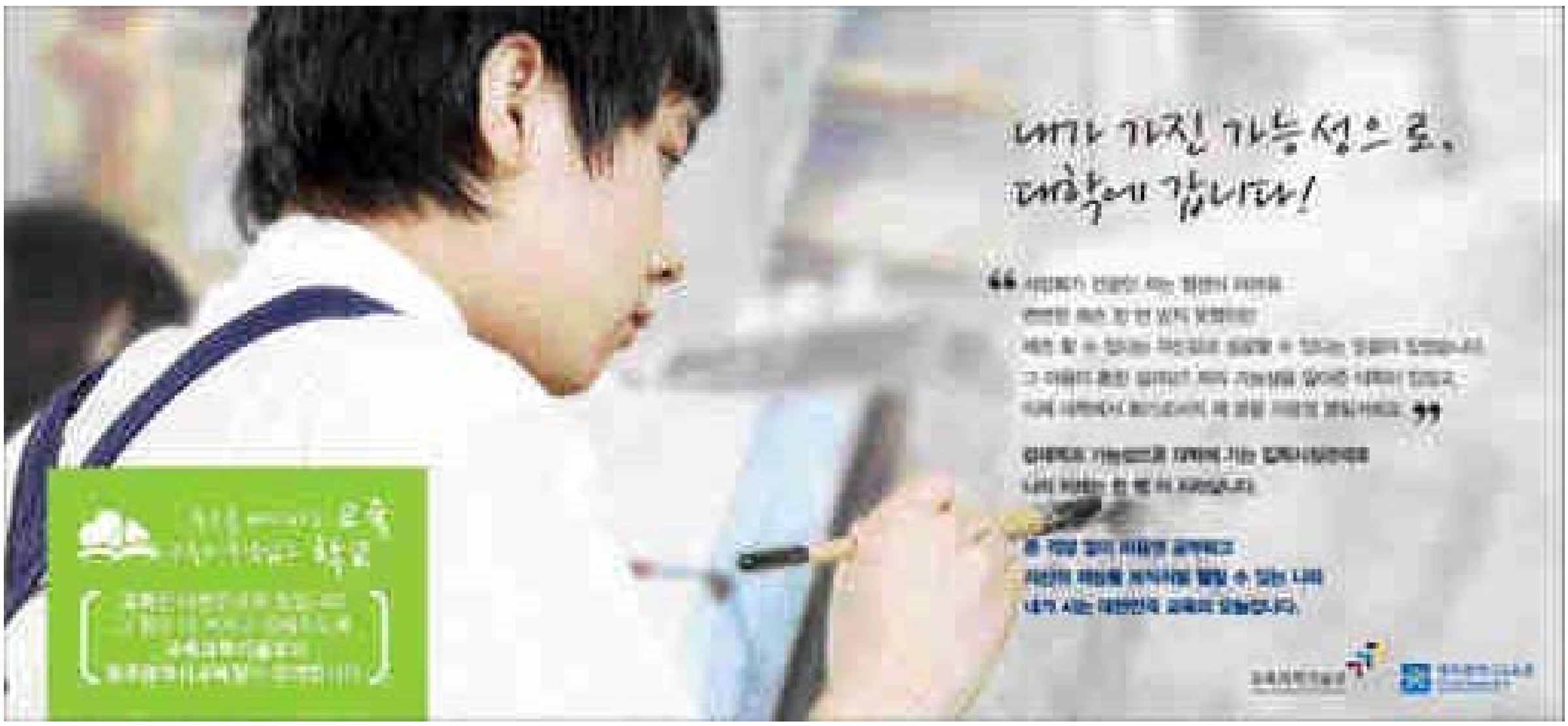
■ 남은 과제

박람회장 기공식이 시작됐지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가장 중요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과 주요 SOC 사업이다. 예상 관람객 수가 외국인 55만 명을 포함해 모두 800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자유치를 통한 콘도·호텔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선뜻 나서는 기업들이 없어 숙박시설 부족 상황은 여수박람회의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도로망 확충 미비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가 여수박람회 개최에 따른 SOC 사업 완공을 위해 내년도 예산 2조64억 원의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6천238억 원만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의 완공시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여수시내 박람회장 연결도로 확장사업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는 고속도로와 국도 등 광역교통망과 박람회장 연결 시내 도로망 확장을 위해 석창~둔덕(5㎞) 등 6개 구간 도로 교통망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 1천930여억 원의 사업비 투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도로망 확충에 대한 예산부족과 시내 주요 도로는 여수시 자체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박람회장 진입 연계도로 개설 및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터미널~박람회장(2.8㎞) 구간의 경우 교통혼잡 분석 결과 반드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여수시내 주요 도로의 확충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